

황인경 성균관대 인문학연구소 연구원

ABSTRACT

반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맥베스는 세 마녀의 예언을 듣고 권력욕에 사로잡힌다. 이러한 욕망을 바탕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죽음과 정복의 살인이라는 자기 스스로를 멸망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만다. 계속되는 살인으로 맥베스는 끊임없는 죽음으로 일관된 비극으로 종말이 난다. 과연 이들의 죽음은 장송곡으로 이어지는 모차르트의 레퀴엠과 같은 고전 성가극의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다. 죽음이란 과연 안식인가, 하나님의 심판받는 날인가를 두고 계속해서 인간의 죽음을 그려내면서 장례식장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 『맥베스』의 작품에서 세 마녀의 이야기의 예언을 믿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을 그려내고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맥락으로 모차르트 『레퀴엠』에 나타난 장례식 이미지와 『맥베스』의 살인 사건에 나타난 이미지가 어떻게 기독교적인 관점과 반하는 기독교적인 해체가 이뤄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검색어: 맥베스, 모차르트 레퀴엠, faith, scholarship

I. 서론

셰익스피어의 비극 작품 중의 하나인 『맥베스』를 살펴보면, 탐욕과 욕망이라는 세속적인 욕심을 따라 지내는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자녀가 되었던 비극의 결말을 『맥베스』 작품에서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궁정이나 귀족들의 권력투쟁의 선과 악의 영혼의 갈등 속에서 인간의 최악성인 악의 영혼을 따라가는 처참한 죽음과 진혼곡의 연속으로 이뤄진 작품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말은 하나님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하였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고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

땅한 바니라. 누추하과 어리서은 말이니 회룡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혼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년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에베소서』 「5장 3절~5절」)

이교도의 우상 숭배와 마녀들의 이야기에 귀를 솔깃하고 기독교의 해체가 담론의 중심부를 이끌어가고 작품이 전개되고 만다. 이러한 세 마녀들의 대사들은 이미 권력투쟁의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가기 위한 전략에 인간들이 빠져들기 위해 충분한 미혹과 잔인함의 대사들이다. 이러한 맥베스를 연극하기 위한 대본을 재구성한 흥인표의 대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마녀들이 꽃에 이끌려 일어선다. 그들의 피의 냄새를 맡은 베고픈 늑대들과 같다.

마녀 1: 맥베스.

마녀2: 맥베스,

마녀3. 맥베스 .

마녀 1: 반역을 진압한다. 검서린 칼 휘두르며 피의 연기 뿜어대며 적진 깊이 진군한다.

오라! 맥베스!

마녀2: 적군이 쏜은 피로 목욕을 하는 구나! 반역자의 해골로 언덕을 쌓는 구나! 오라! 맥베스!

마녀 3: 반역자의 검붉은 심장이 푸른 대지를 붉은 피로 물들인다. 오라! 맥베스!

(기쁨의 춤을 추며 합창한다.)

마녀들: 맥베스가 승리했다. 맥베스는 위대하다. 반역자 코더의 동맹군들, 용맹스런 맥베스가 모두 진압했다. 맥베스의 때가 왔다. 맥베스를 불러라. 맥베스를 등장시키자 아름다운 맥베스를 등장시키자.

세 마녀의 유혹과 나약한 인간의 영혼 사이에서 연속되는 등장인물들의 죽음은 미리 예견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마치 장례식 때 울리는 진혼곡이 이 전체적인 극 전반에 흘러나오고 있다. ‘레퀴엠’이라는 뜻은 ‘진혼곡’ 혹은 ‘안식’이라는 뜻으로 장례 미사용으로 쓰이는 곡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성가곡이나 가스펠과는 사뭇 차이를 가지고 있다. 모차르트는 결국 『레퀴엠』을 완성하지 못했고, 위대한 모차르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살리에르의 의도로 만들어진 곡으로써, 음악적인 살인이고, 이러한 곡을 작곡하면서, 모차르트 역시 서서히 죽어가는 장송곡을 듣게 되는 차가운 죽음으로 비참한 삶을 마감하고 만다. 모차르트 『레퀴엠』에 대한 살리에르의 의문과 추측 들이 또 하나의 서사적인 허구를 만들어낸다. 계속 죽어나가는 모습의 현상이 되어버린 『맥베스』의 작품은 이처럼 진혼곡을 상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2세기 동안 허구와 추측 등과 사실 여부의 에피소드를 두고 만들

어진 음악과 비극 작품과의 만남 속에서 맥베스의 등장인물들의 운명과 일치되는 면들이 음악 분야를 넘나들면서, 『맥베스 레퀴엠』이라는 연극도 탄생되었던 만큼 우리에게 고전 음악과 셰익스피어 작품인 『맥베스』의 세 마녀의 예언대로 극이 전개되는 것을 살펴보면서 전개되는 살인과 비극적인 장송곡과 연결고리를 통해서 융합과 복합적인 예술성의 가치와 함께 기독교적인 요소의 상실과 해체에 대한 논고를 살펴보고자한다.

II. 『맥베스』 속에 나오는 세 마녀의 스토리 텔링

맥베스에서는 여섯 명의 등장인물들이 죽어나간다. 맥베스는 덩컨왕을 죽임으로써 본인 맥베스도 죽게되는 과정이 하나님의 진노와 불순종의 비극으로 끝을 맺는다. 『맥베스』의 핵심주제는 야망으로 표현되는 불순종의 신성모독죄에 대한 댓가이다. 결국 기독교적인 해체로 인한 비극의 종말을 그들에게 편안하게 안식을 이끌어내는 것이 더 이상의 죄의 고리를 끊으려는 의도 속에서 우리는 모차르트의 『레퀴엠』과의 연결성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미완성으로 된 레퀴엠은 1791년 12월 5일 모차르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레퀴엠 하나의 교향곡과도 같은 악보로 이루어져 있으며, 당시에는 종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유럽의 중세 사회는 거의 가톨릭에서 종교나 죽음을 소재로 한곡이 많았다고 한다. 이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가톨릭의 미사곡의 진혼곡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입당송(Introitus), 자비송(Kyrie), 부속가(Sequentia), 봉헌송(Offertorium)은 성악 파트만 완성되었을 뿐 기악 파트는 바소 콘티누오와 드문드문 단편적인 모티브만 제시되었을 뿐이다. ‘부속가’의 마지막 부분이 ‘눈물의 날(La crimos)은 8마디만 작곡했으며, 그 나머지 부분인 ‘거룩하시도다 (Sanctur), 주님의 어린 양(Agnus Dei) ‘영성체송’(Communio)은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다. 다만 콘스탄체는 모차르쿠 마지막 ‘영성체송’에서 ‘입당송’과 ‘자비송’을 반복하려고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이준형, 2)

가톨릭에서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이자, 축복을 받는 날이라고 한 것은 아마 나머지 살아 있는 사람들과 억울하게 살해 당한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곡인 모차르트의 『레퀴엠』이란 곡과 연결되며, 더 이상의 죽음을 초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생존자의 축복-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책-을 뜻하는 것으로도 모차르트의 진혼곡으로 대변해주며, 또한 이 노래는 『맥베스』의 비극을

막기 위한 강구책의 노래이면서 동시에 신뢰에 대한 불확실성의 이중성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중성은 인간 내면안에 내포된 선과악의 선택적 의지가 담겨져 있다.

맥베스: 이 일이 끝났을 때 그것으로 끝이라면
 빨리 끝이 나는 게 좋겠지. 만약에 암살로
후발 사타 훑아메고 서거로 성공을
거둘 수만 있다면, -여기,
바로 여기 시간이 여울지는 강변에서
내세 걸고 뛰어보리. - 그러나 이런 경우
우린 항상 이승의 심판을 받게 된다.
즉 유험를 가르치면 배운 자가 되돌아와
교사를 괴롭히고 공평한 정의의 법관은
우리가 탄 독배를 우리가 마실 것을 제안한다.
그는 여기 이중의 신뢰로 머문다.

. . . .

(33. 1막 7장)

Macbeth: If it were done when 'tis done, then 'twere well
 It were done quickly. If the assassination
 Could trammel up the consequence, and catch
With his surcease succes - that but this blow
Might be the be- all and the end - all! - here,
But here, upon this bank and shoal of time,
We'd jump the life to come. But in these cases
We still have judgement here - that we but teach
Bloody instructions, which, being taught, return
To plague the inventor. This eve-handed justice
Commands the ingredience of our poisoned chalice
To our own lips. He's here in double trust:

. . . .

(I.6-7)

맥베스에 나오는 권력자들은 영웅적인 존재도 아니며, 신화에 나오는 초인간적인 환타지 소설에나 나올 법한 전설적인 영웅도 아니다. 맥베스는 덩컨왕을 죽임으로써 맥베스 본인 역시 죽게될 것이라는 이승의 심판을 예견하고 있다. 맥베스는 나약한 인간 존재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죽음의 골짜기로 자기자신을 뛰어 들 수 밖에 없다. 적군이 쏜은 피로 목욕을 하고 반역자의 해골로 언덕을 쌓아간다고 예측한 마녀들의 이야기 속에서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세 마녀가 주는 예언들이 하나씩 전개해나가는 복선을 제시되고 있다. 계속되는 살인의 연속이 권력욕에 눈이 먼 사람들

의 비극과 암흑을 그려낸 『맥베스』와 모차르트의 『레퀴엠』에서 주는 이미지는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맥더프 부인과 그 아들의 죽음은 맥베스의 권력욕에서 오는 집착들이 오히려 맥베스 부인의 죽음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자비송’에 나온 가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의 여자, 오 주여 우리에게 큰 자비를 베푸소서.(12. 이기선역)

라고 가사에는 묘사되어 있고, 이 가사는 합창에서 ‘그리스도의 여자’라는 음은 엘토만이 부르게 되어있으며, 먼저 남성 베이스 합창이 오 주여 우리에게 큰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가사가 4박자가 먼저 나오도록 구성되어 있다. 바세트 호른과 바순, 트롬본과 트럼펫과 현악기와 오르간이 울리는 반주가 연주되면서 시작된다. 시종일관 바장조의 음계를 이뤄나가면서, 가사와 함께 음역으로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연주한다. 빠르기는 알레그로로 급박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레퀴엠』은 음산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소리로 진혼곡은 시작된다. 이러한 것은 세 마녀의 이야기의 전제를 바탕으로 시작되는 분위기와 일맥상통하다. 맥더프 부인과 그 아들의 죽음은 이 맥더프 집안의 혈통과 대가 끊어지는 한집안의 몰락을 뜻하고 있으니, 급박한 상황의 음악으로 맥베스의 내용에 훨씬 더 집중적으로 가까이 가게 된다. 이것은 이성의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인간들의 욕심과 야욕으로 가득찬 목적을 달성하는 감정으로 북받쳐 오르게 되는 상황이 그려지고 있다. 이것은 인간사회에 자비와 용서가 없는 기독교의 해체이다. 기독교의 해체 속에 시작된 살인은 죽음의 사명의 골짜기로 빠지게 되는 안타까운 희생으로 진혼곡은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현상을 연출해 내고 있다. 르네상스 인본주의가 말해 주듯, 개성은 있지만 능력과 한계가 명확한 존재로서의 인간상을 그려나가고 있다. 가톨릭에서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이자, 축복을 받는 날이라고 한 것은 아마 나머지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의 죽음을 초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생존자의 축복을 뜻하는 것은 『맥베스』의 비극을 막기 위한 강구책 이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모차르트의 『레퀴엠』의 안식과 죽음의 이중성(equivocal)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계속되는 희생자에 대한 추모곡으로 모차르트의 『레퀴엠』을 연상케하고 있다. 유럽 중세 사회를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장례식을 연상케하는 미사곡으로 개신교에서는 입관 예배 의식과도 비슷한 것으로 안식과 죽음이라는 모호성(equivocal)의 수사학을 연출해내고 있다. 자비와 심판이 뒤따르는 일관된 모호성으로 묘사되고 있다.

III. 기독교적인 해체와 진혼곡

맥베스는 클라미스의 영주이며, 전쟁터에서 반란군을 진압하는 데 성공을 하고 돌아오는 중에 친구인 벵코와 함께 밤중에 광야에서 마녀들을 만나 예언을 듣게 된다.

그 예언의 내용은 자신이 코더의 영주가 되고 그 이후에는 왕이 될 것이라는 마녀들의 말에 솔깃하여 달콤한 유혹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마녀들의 유혹의 장면과 무대 배경에 대한 해설은 다음과 같다.

무대 중앙에 꽃으로 장식된 왕관이 걸려 있는 작은 무대가 보인다. 커다란 꽃잎으로 둘러싸인 3개의 단이 이 작은 무대를 둘러싸고 있다. 세 마녀의 등장. 아름다운 음악고 함께 끝없이 반복되는 살인놀이를 한다. 피의 무대, 놀이가 끝나면 잠시 정적, 그들은 잠시 흥미를 잃은 듯하다. 마녀들이 꽃에 이끌려 일어선다. (홍인표)

이와 같이 홍인표가 연출한 『맥베스』의 대본에는 마녀들은 맥베스의 전승 환영식을 위해 준비된 꽃을 교만과 술수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꽃이 주는 미학적인 의미는 보이는 세상과 유혹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 꽃은 소리가 없다. 이것은 바로 성경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마력의 의미를 담아내는 무대 공간을 홍인표는 연출해내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성경적인 해석에 집중을 하게 된다면, 맥베스에게 환영식을 위한 꽃보다는 성경 말씀과 겸손과 덕행이 보이는 교회 제단이 보일 법한 무대를 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맥베스를 권력욕과 탐욕의 상징을 나타내기 위해 무대 공간을 유혹의 장으로 마련하기 위한 소리가 없는 보이는 세계가 더 중요한 공간인 것이다. 꽃에서 풍겨나오는 이중성에 관객들도 빠져들어가면서, 꽃으로 장식된 마녀들의 세계는 세속과 영혼이 없는 인간을 마력으로 이끌어가는 유혹의 늪의 상징이기도 하다. 마녀들은 인간의 시간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고 피를 부르는 정권을 불러 일으키는 유혈사태를 모색하는 복선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미 예견된 진혼곡의 음향효과를 자아내고 있다.

제 1막 2장의 대장의 대사를 살펴보면, 빛과 어둠이 항상 공존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성(equivocal)이 가져다 준 대사라고 볼 수 있다.

대장: 태양이 비치기 시작하는 곳에서
난파의 폭풍과 불길한 천둥이 터지듯이
안도의 샘물이 터졌죠. 왕께선 잘 들어 보소서, (1막2장)
...

Captain: As, whence 'gins his reflection,
Shipwracking storms and direful thunders;
So, from that spring whence comfort seemed to come,
Discomfort swells, Mark, King of Scotland, mark! (I.6-7)

이와 같이 태양이 비추는 곳에 불길한 일이 일어날 듯한 징조의 이중성은 다음과 같은 대사 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는 인간의 최악의 본성을 좇아 행한 모습들이 역력히 드러나

고 있다. 제 1막 7장에서 나오는 지문과 해설에서 오보에 소리와 햇불, 시종장 및 여러 하이들이 등장하며 무대를 가로질러 지나간 후에 맥베스의 등장이 재현되고 있다. 제 1막 7장에서 나오는 관악기 연주는 모차르트의 『레퀴엠』과 코르노 디(Corno di)라는 관악기로도 연주되고 있다. 이러한 관악기는 맥베스 제 1막 7장에 나오는 오보에라는 목관악기의 일종으로 시작되는 소리의 음향효과는 하나님의 나팔소리와는 사뭇 다른 대조를 이루고 있다. 주로 1막에서 나오는 음향의 효과는 오보에와 햇불로 무대의 공감각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오보에는 소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청각적 효과와 햇불은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시각적인 효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재현한 햇불은 이중성의 공감각적인 수사학의 담론이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대신 꽃과 햇불로 장식된 모습은 영원성이 없는 곧 소멸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대상물들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장에서 승리한 장군을 환영하는 오보에는 하나님의 권좌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며 이러한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에 등장하는 오보에라는 악기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무력에 의해서 또 다른 장군이나 왕 앞에서도 굴복과 전복의 힘으로 그 대상이 바뀌질 수 있는 충성스런 악기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 통제력이 없는 맥베스에게 오보에 소리로 환영과 화답을 들려주고 있다.

맥베스는 전투현장에서 일반적인 수준의 용맹함을 넘어 적에게 절대로 관용을 베풀지 않을 정도로 잔혹한 모습을 보였지만, 플라톤의 시각에서 보면, 그의 전반적인 태도와 행동은 진정한 전사가 지닐만한 용기와는 사실상 거리가 먼 것 있었다.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한 채, 오직 왕권에 대한 충동적인 욕망과 주변 인물들이 자극에 의지해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상한 맥베스는 애초부터 왕의 자리에 오른 후 무엇을 어떻게 해 보겠다는 뚜렷한 목적의식이 없었고, 또한 자기 통제력도 온전히 갖추지 못한 단순 싸움꾼에 불과했다. 이에 셰익스피어는 맥베스처럼 폭력적인 성향과 권력욕으로 충만해 있으나, 자기 통제력이 결핍되고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인물들은 결코 타인이나 공동체를 이끌 수 없음을 그와 연관된 부정적인 행위 묘사를 통해 암시한 것이다. (15, 서영식)

자기 통제력의 상실은 오직 마녀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는 나약한 존재로 무력으로 왕권을 탈취하려는 권력에만 욕심과 집착에 매달려 있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맥베스의 권력욕을 부추키는 맥베스 부인의 성격은 다음의 대사에서 엿 볼 수 있다.

맥베스: 오 여보, 덩컨이 오늘 저녁

여기로 온답니다.

맥베스 부인: 그래서 언제 가죠?

맥베스: 내일이오, 예정은 그렇소.

맥베스 부인: 오! 태양은

절대로 그 내일은 못봐요!

영주님, 당신의 얼굴은 서책과 같아서
낮선 걸 읽을 수 있어요. 세상을 속이려면
세상처럼 보이세요. 눈과 손과 혀로써
환영을 표하세요. 순진한 꽃 같지만,
그 밑에 도사린 뱀이 돼요. 오시는 그 분을
대접해 드려야죠. 그리고 당신은
오늘 밤의 큰 일을 내 수완에 맡기세요.
이 일로 우리는 다가오는 모든 날에
종횡무진 지배권을 가지게 될 거예요. (30. 제 1막 5장)

아담을 유혹하는 이브의 모습처럼 인간 존재와 세상을 사악한 영혼의 지배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세계관을 그려나가고 있다.

IV. 결론

세상을 속이는 보이는 세계 속에 집착을 하는 햇불과 꽃으로 무대 장식을 하는 화려한 소품들이 사탄의 유혹이 숨겨져 있음을 시사하는 반기독교적인 속성의 표현이 담겨져 있다. 이에 반해 모차르트의 『레퀴엠』은 트럼펫의 관현악기는 시종일관 연주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리스도의 여자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모차르트 레퀴엠의 가사와 음악적인 효과는 이러한 맥베스의 비극을 강조하면서 반면교사로서 삼아야 되는 기독교의 해체가 될 경우 죽음의 골짜기로 가는 도덕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